

사순절 첫번째 주일예배
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IN LENT

주후 2022년 3월 6일 오전 10시
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38장 “예수 우리 왕이여”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124 번 사순절 (1)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643 장 “세번 아멘” (통일 555)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윤영록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누가복음(Luke) 11:1-4	양용일 집사
찬 양 Anthem	“샘물과 같은 보혈”	찬양대
설 교 Sermon	“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” (Your Kingdom Come)	김일선 목사
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	“내 영혼은 안전합니다”	다같이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주의 만찬 Communion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17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통일 353) 1 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찬 송 Hymn	620 장 “여기에 모인 우라”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*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주님께서는 “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

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”고 당부하셨지만,

우리는 여전히 그릇된 자아를 거부하지 못했고,

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중도에 포기할 때도 많았습니다.

그래서,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,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

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,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했고,

그릇된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좇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.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.”

이 시간,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오니,

이제부터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,

“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

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”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(*눅 9:23, 골 3:17)

오/늘/의/ 성/경/말/씀 TODAY'S SCRIPTURE

“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
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”(개역개정 **눅11:2**)

“He said to them, "When you pray, say: " Father, hallowed be your name, your
kingdom come. (NIV **Luke 11:2**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3/6 (주일)	3/7 (월)	3/8 (화)	3/9 (수)	3/10 (목)	3/11 (금)	3/12 (토)
	출17	출18	출19	출20	출21	출22	출23
본문	눅20	눅21	눅22	눅23	눅24	요1	요2
	욘35	욘36	욘37	욘38	욘39	욘40	욘41
	고전5	고후6	고후7	고후8	고후9	고후10	고후11

수/요/ 찬/양/집/회

토/요/ 새/벽/기/도/회

수요 찬양집회 (3/9 오후7:30)	“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”(삿14:1-17)
토요 새벽기도회 (3/12 오전6:30)	“이새의 아들 다윗 기도가 끝나니라”(시72:1-20)

지난 주일(2/27) 말씀 (정재홍 목사)

“이름 없는 종”(창세기 24:10-15)

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리빙스톤(Livingstone)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
나셨을 때, 장례가 치뤄지던 내내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시신을 지키며 장례를
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는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도와 아프리카 선교
에 평생을 헌신했던 무명의 아프리카 사역자였는데, “그가 누구인지?” “그가 구
체적으로 어떠한 선교사역을 감당했는지?” 알려진 바가 전혀 없지만, 하나님께
서는 리빙스톤 선교사님에게 상급을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“이름 없는 아
프리카 사역자”에게도 큰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늙은 아브
라함을 위해 귀한 일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창
세기 15장에 나오는 “엘리에셀”일 수도 있지만, 본문은 이 사람의 이름을 구체
적으로 명시하지 않고, 단지 “늙은 종” 즉, “이름 없는 종(Unnamed Servant)”으로
만 표현할 뿐입니다.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았을 정도로, 아브라함
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. 신뢰는 하루 아침에 얻어질 수 없듯이,
그는 평소에도 신뢰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. 그러면, 본문에 나오는
이 “이름 없는 종”의 모습을 통해,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까? 1)첫
째, 우리도 선한 목적을 추구하며 최선(最善)을 다해야 하고, 2)둘째, 우리도 무릎
을 꿇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, 3)셋째,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(선교의 사
명)을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(이처럼) 하나님
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. 그러므로, 우리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,
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,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